

제주사회복지신문

제40호
2011년 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고경윤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702-3783 ~ 4 / 팩스 : (064)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도민을 위한 최고 사회복지가치 창출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도내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교육기관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기관 ▲도민의 신뢰받는 나눔문화 선도기관 ▲교류·협력의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연계 중심기관 등을 비전으로 수립, 제주도민을 위한 최고의 사회복지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중심복지', 가장 제주다운 복지모델을 창출하는 '지역중심복지', 지역복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계중심복지'를 실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올해 협의회 주요 사업.

▲**사람중심복지**=도내 유일의 사회복지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한다. 교육수요자와 사회복지현장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 11개 과정 490여 회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복지교육을 확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가 추진하는 목적 사업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직능별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져 사회복

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사회복지인의 대화합의 장인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9월 7일 열고 사회복지주간 행사로 사회복지정책 세미나와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프

레젠테이션 대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중심복지**=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해 제주도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인증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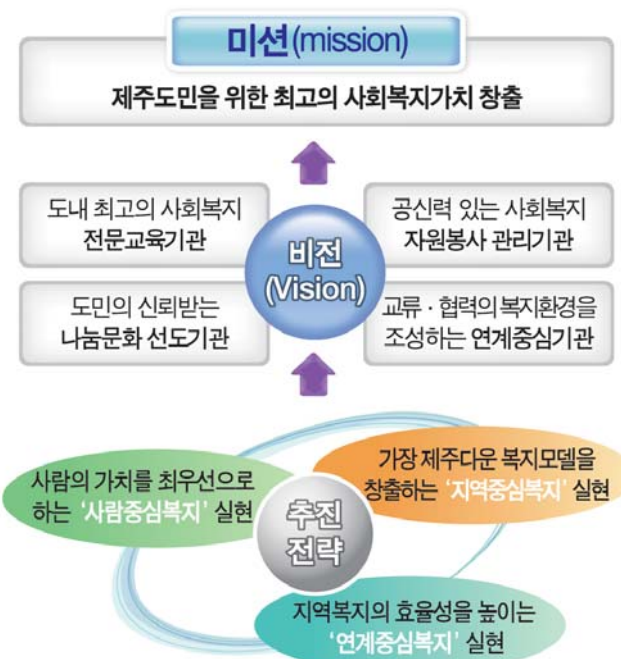
다양한 재가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민에게 다가서는 나눔활동으로 수놓음 정신을 구현하고, 더 많은 도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기회를 넓혀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일 예정이다. 협의회 홈페이지에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를 열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례 발표 등을 할 예정이다.

▲**연계중심복지**=도민을 대상으로 나눔과 기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참여기회를 제공해 생활 속의 아름다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재능나눔 기부자 중심의 문화공연도 예정돼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기본 현황과 주요 사업 등을 담은 '제주사회복지편람'도 발간한다.

참여·화합 선도로 역동적 사회복지현장 구현
수요자목구반영 '사회복지아카데미' 연중운영
사회복지정책·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대안 제시



알림

“제주사회복지 1호를 찾아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사회복지의 오늘을 만들기까지 그 소중한 첫 발을 내딛었던 역사의 흔적을 찾아 제주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제주사회복지역사를 정리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사회복지 1호'를 찾습니다.

'제주사회복지 1호'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로 추천 또는 신청해 주시면 확인 과정을 거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자유게시판, 전화 702-3784)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여러분의 투표가 제주의 가치를 높입니다.”

I 인터넷투표
www.new7wonders.com

I 전화투표
001+1588+7715 연결 후, 영어멘트가 끝나고, 삐 소리 이후에 7715 (제주코드) 누르면 감사멘트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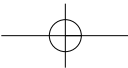
謹賀新年

2011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제주은행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道,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확대

78억 투입 1300명 이상 참여...15% 자활성공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난해에 비해 9% 증가한 77억9600만원을 투입해 18세 이상 64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에는 1300명 이상이 참여해, 이 가운데 15% 자활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33명이 참여해 142명(탈수급 73명, 취·창업 69명)이 자활에 성공했다.

자활근로사업은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

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야생초차 생산, 천연염색, 친환경농산물 재배 등의 사업을 4개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활근로사업과 함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생계급여에서 30%의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부터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기움통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소득층의 탈수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장 방문과 자활근로 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취업·창업률을 높이기 위해 수요가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특화사업과 자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복한 케이크 만들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빵 만들기 행사가 1월 20일 제주관광대학에서 관광대학 여교수회와 국제가정문화원 공동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인기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인증을 받지 못한 보육시설보다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과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보육시설의 정원과 현원을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정원 1만6642명에 현원은 1만5021명으로 정원충족률이 90%를 기록했다. 반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보육시설은 정원충족률이 74%에 머물렀다.

이처럼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원아가 몰리는 이유는 보육시설의 설비 등 물리적 환경과 보육프로그램 등 각 영역에 걸쳐 평가인증지표를 통과해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제주 시내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285곳으로 전체 373곳의 76%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66%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반값 공급

제주시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3200여 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영유아복지 지원 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이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10

kg이다. 1인 가구는 20kg 1포를 격월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2인 가구는 매월 20kg 1포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가구는 월 최대 20kg 2포로 구입량이 제한된다.

제주시는 3만7080원인 정부양곡(20kg)을 50% 저렴한 1만8500원에 공급한다.

구입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를 받으며, 매월 10일까지 신청분에 대해 21일부터 말일까지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준다.

노인복지사업 확대...노후생활안정 기대

제주시가 노후생활 안정과 건강한 장수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제주시는 올해 500억여원을 투입해 노인요양 및 일자리 창출, 노령연금, 경로당 활성화 추진, 무료급식 등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4만원 상향 조정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작년 2만8900명에서 2100여명 증가한 3만1000여명으로 늘어난다.

또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이 1인당 월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돼 수혜인원도 8900명에서 9800명으로 증가하고, 기초생활수급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5000~6000원의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한다.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지난해보다 40% 정도 증가한 1460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소일거리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원터역할을 하는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등 2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 노인에게 주거 임대료 등으로 6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노인돌봄기본사업과 몸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투자한다.

강철수 제주시 사회복지과장은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포도·횡간도에 상비응급의약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기관이 없는 도서지역에 상비 응급의약품(사진)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아파도 당장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인 추포도와 횡간도에 해열진통제와 외상연고, 파스, 반창고, 소독약품 등 20여종의 상비 응급 의약품을 비롯해 전자자동 혈압계, 당뇨검사기 등이 들어 있는 구급함을 지원한다.

또 섬과 추자보건지소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는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과 질병을 호소할 경우 전문 진료기관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교통이용료 지원 확대

서귀포시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이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교통이용료를 지원해 원활한 외출서비스 및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과 1~2급 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1인당 2만원씩 600명에게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통이용료 지원대상자 나이 제한을 없애고, 2급 시각장애인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보다 200명 가량 대상자가 늘어난 800여명이 교통이용료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원액도 1인당 월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한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1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910,000	910,000
난치병환아후원	100,000	1,000,000
자원봉사후원	1,570,000	1,570,000
복지사업후원	1,310,000	679,990
푸드마켓후원	5,365,000	2,529,29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39)가롤로의집



모범을넘어 영혼이 있는 집 꿈꾼다

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이대원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지적장애인들의 개별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1998년 '광령작은예수회'를 창립했다. 이후 2005년 제주시 화북동에 건물을 지어 가롤로의집(원장 김금숙)으로 명칭을 바꿔 지적장애인생활시설로 등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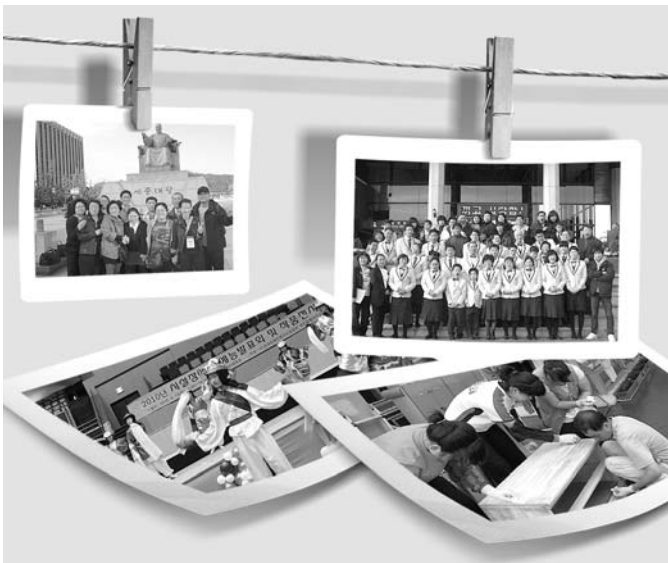


가롤로의집에는 30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70%가 2~3급의 경증 장애인이라 자립생활 및 취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프로그램 진행해 왔다.

황사평성지 공동작업장에 잔디식재 작업을 하며 직업 재활의 기초를 다졌고, 현재 레스토랑, 한라산업, 식당 등에 9명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하는 등 극기와 성취감을 맛보고 있으며, 탈춤아리리는 일본 공연을 다녀올 만큼 장애인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에는 가롤로합창단을 조직해 구슬담을 흘리며 연습한 뒤 지역사회에 발표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차를 마시며 예절을 배우는 다도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지적 장애인과 함께 하는 나무와 재활용품기구와 폐품을 이용한 리폼교실'을 운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장연욱 교사는 "장애인들이 공구를 만지고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신기해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고, 버려진 프라이팬이 시계로, 음료수 병뚜껑이 예쁜 머리끈으로, 찌그러진 강통이 예쁜 화분으로 달라진



김금숙 원장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 제공 노력"

모습을 보면서 감탄과 기쁨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이용자자치회'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면서 불편한 점 등을 건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구역을 정해 청소를 실시하고, 생일 등 경조사에 작은 선물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분들의 올해 소망을 살짝 엿보았다. "건강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룹홈으로 나가고 싶어요" "여행가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집 사고 싶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가롤로의집 식구들의 소망이 모두 이뤄지기 위해 직원들

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작년 12월 취임한 김금숙 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난 5년간 가롤로의집은 외형과 기초를 다지는데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는 그 토대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롤로의집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자립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체험홈으로 나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량 개발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직원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명예기자〉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도, 취약계층지원사업에 1288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생활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1288억원을 투입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5100명에게 생계·주거비 등으로 총 52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은 지난해보다 3.3% 인상된 117만8000원(4인 가족 기준)으로 결정됐다. 또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650억원을 투입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한다.

8억5800여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기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희망기움통장

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교육급여 등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및 취업 등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춰 77억 9600여만원을 투입, 자활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자활지원사업 참여자 100명에게는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한 수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14억6700여만원, 긴급복지지원 5억1000만원, 자활근로소득공제 4억90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에 2억 1000여만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도, 장애인시설에 17억3000만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선진화와 시설 입소 장애인의 재활치료 등을 위해 장애인생활시설에 17억3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수치다.

세부사업을 보면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위한 재활 활동실 건립 5억9200만원 ▲시설 개·보수 6억1600만원 ▲장애인특수차량 등 장비구입 1억2200만원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한 체험홈 시

설 4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는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도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 15명에 긴급전화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해 1월부터 연중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도내 독거어르신 가정에 긴급전화 설치를 위한 모금함을 운영해 100여만원을 모금, 독거어르신 15명에게 긴급전화와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긴급전화 보급사업이 확대위험 노출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전화기를 보급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노인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맞이 정나눔 프로젝트 전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한 달간 100여세대를 대상으로 설 위문물품을 전달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위탁가정 등을 돌아보며 이웃들이 보내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새로운 해를 희망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설맞이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다양한 치료로 정서적 안정 지원

단비아동가족상담센터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 부설 단비아동가족상담센터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겪는 인지, 언어, 사회, 정서, 행동, 대인관계, 적응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다양한 치료 및 특수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기능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와 상담센터가 서로 협력해 아동의 성장 발달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아동의 정서와 행동, 발달 리듬에 맞는 적절한 치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주보육원에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1월 27일, 제주보육원 아동들의 얼굴에 밝그레한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제주항공의 지원을 받아 하루 일정의 짧지만 알찬 서울나들이를 나선 까닭이다. 이들은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서울광장을 찾아 찬바람을 가르며 스케이트를 즐기고, 진지한 표정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을 관람했다. 제주항공은 매년 도외나들이

꿈을 타고 날다

지원을 통해 다른 지방 여행경험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33명의 아동들이 긴 겨울방학에 색다른 추억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나들이에 함께한 한 아동은 “개학이 기다려져요. 개학을 하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예요”라고 들뜬 마음을 표현했

다. 이처럼 아동들이 비행기를 처음타고 서울 나들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부터 제주항공이 승무원들의 재능을 활용해 제주보육원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영어수업을 진행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또 도외나들이와 더불어 매주 제주항공 승무원과 아동이 함께하는 영어수업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면서 아동들이 영어가 어렵다기 보다는 재밌고 즐거운 것으로 느낀다고 한다. 지금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 생겨 외국인을 만나면 먼저 “Hello”라고 인사를 건네며 스스로없이 그 동안 배운 영어실력을 뽐낸다.

이미경 담당교사는 “꾸준한 영어수업으로 아동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도외나들이를 통해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우리 친구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주항공과 승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홍철 명예기자〉



소외아동대상 하모니 등 운영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지원사업 ‘하모니’와 지역사회조직을 통한 방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동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모니는 개별치료, 사회적 관계증진프로그램,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지는 지역컨소시엄 조직사업, 통합사례관리, 학습지원,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건강지원 등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생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여건을 마련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소/식/마/당

JDC, 장애인요양원 앞 도로 제설작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는 2010년 세밀 폭설로 결빙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영) 마당과 앞 도로에 1월 4일 제설차량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JDC의 작지만 큰 배려로 제주장애인요양원 장애인들은 큰 어려움 없이 병원진료 등 외부활동이 가능했다.

CJ 도너스캠프 '올레길 투어' 지원



CJ 도너스캠프가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 아동들에게 겨울방학 기간동안 ‘올레길 투어’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1년도 새해를 맞아 아동들에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의지력과 협동심, 자신감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제역으로 인해 올레길 코스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매주 목요일 올레길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12월 28일 서귀포칼호텔에서 2010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을 실시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5개 국가의 다문화가족 46가정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을 통해 가족구성원간 친목도모 및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일배움터 희망만들기 실시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1월 7일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정진모 관장을 초청해 일배움터의 2011년 비전과 직원간 이해증진을 통한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일배움터 직원의 사명’이란 주제로 직원의 사명감 부여와 일배움터의 비전을 공유하고 전체 비전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힘찬 전진을 다짐했다.

제주애덕의집, 복지부 최우수시설 선정

제주애덕의집(원장 이대원 신부)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전국 2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제주애덕의집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모든 영역에서 A등급(96.18)을 획득했다.

특히 다른 시설에 비해 이용자의 권리(100점), 프로그램 및 서비스(98.21점), 시설 및 환경(95.83점)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대원 원장은 “우리 기관의



실천목표인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가정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준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시설입주 장애인의 인권보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시설환경 개선, 지역연계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죽원 물리치료실 무료 개방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물리치료실을 개방한다.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문의=799-8555~6.



겨울프로그램 눈썰매타기 진행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1월 13일 제주대학교에서 겨울프로그램 눈썰매타기를 진행했다.

계절에 맞는 체험을 통해 사회적 경험을 넓히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직업체험도 하고 진로설계도 하고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직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동신, 이하 센터)는 '2010년 복권기금 청소년 특화사업'으로 직장체험(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센터를 이용하는 중학생 15명에게 '내가 알고 싶은 직업은?'이란 설문을 통해 조리사, 바리스타, 국회의원, 회계사, 조각가 등 5개의 직업을 선정했다.

1월 12일 첫 시간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위치한 마린파크(대표 김철우)의 조리사, 1월 19일에는 제주시 노형동 루스트레스토라의 구운분 바리스타, 1월 21일에는 강창일 국회의원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그 직업의 매력, 보람, 힘든 점,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소중한 정보를 학생들은 얻었다.

또 물속에 들어가 돌고래에게 먹이도 주고, 머신을 이용해 직접 커피도 만들어 보는 등 직접 체험의 기회도 가졌다.

박민하(제주서중 1)양은 "직접 체험도 하고 설명도 들으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외에 알지 못



하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참 좋다"며 재미있고 유익한 탐방이라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회계사와 조각가, 두 번의 탐방을 남겨두고 있다.

문의=711-5025.

〈조순옥 명예기자〉

세대공감! 초록세상 만들기

제주양로원, 초등생·노인 공동 원예프로그램 진행

제주양로원·제주양로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월 3회 원예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월 3회중 1회는 외도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명과 어르신들이 함께 짝을 이뤄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다소 서먹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서로를 알아가며 다정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양로원 관계자는 "1년 동안 원예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어르신들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직접 만지



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원예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과 즐거움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 됐으며, 어르신들과 노인시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광원 1주년 기념식·바자회

약천사 자광원(원장 성원스님)은 지난해 12월 18일 자광원 앞마당에서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행복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자광원 입소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1월 식품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74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콩나물 20봉 ▲김치원=김치 60kg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쌀 40kg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평안전문요양원 고치환 원장 사회복지학박사 학위 취득

평안전문요양원 고치환〈사진〉 원장이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치환 원장은 한일장신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종교활동이 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를 통한 상호작용이 노인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간관계 중심의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소집단 형태의 지지모임이나 자조집단을 결성해 질적인 만남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치환 원장은 독거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사회활동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취미의 개발과 연령에 맞는 문화·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 및 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했다.

고치환 원장은 "연구 결과 생활상의 우울이나 정서적인 우울 정도가 높은 독거노인들은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나 결국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거노인의 문제에 접근할 때 신체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관리와 더불어 정서적 측면에서의 우울을 조기발견하거나 치료해 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제공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사회복지적 대안이 필요하며 자아존중감의 외생변수인 사회적 지지와의 연계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활동과 종교변수는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변수에,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 변수에 직접적인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치환 원장은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구결과를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에 전문적으로 투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치환 원장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8개의 연구기설을 설정했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삶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사회활동, 종교, 우울, 건강, 원조 등을 설정했고,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질 등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변수로 설정해 연구했다.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설명절사랑나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순두)는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3억1600만원 상당의 참치캔 선물세트를 1월 20일 전달했다.

설날과 추석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는 제주모금회는 올해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6484가구(제주시 1만1094, 서귀포시 5390), 저소득 다문화가정(외국인 근로자 포



합) 1100가구 등 총 1만7584가구에 위문품을 지원했다.

김순두 회장은 "설명절 위문품 지원은 도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중한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제주도총지회장배 친선대회 개최

월드비전 제주가정개발센터(지부장 김관호)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표선운동장에서 전국에 있는 월드비전 축구동아리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제주도총지회장배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 속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합숙훈련



으로 자신의 실력 점검과 다른 팀들과의 경기를 통해 성취감을 높이는 한편 함께 어울림으로 사회성이 발달되는 시간을 가졌다. 우승은 '목포FC'가 차지했다.

칼럼

새해 두 장애인이 말하는 희망 메시지



김범훈
제주일보논설실장

지난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편견, 부끄러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였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편견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 말이다. 그러나 새해 두 장애인의 이야기는 이런 편견을 딛고 인간의 가치를 드높인 휴먼 스토리다.

사회편견이 장애인에 상처 입혀

바로 닷새 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급 시각장애인 김경민씨(23·여)는 이르면 3월, 꿈에 그리던 일반학교 교단에 서게 된다. 선천성 녹내장으로 13살 때 시력을 잃은 그녀는 국립서울맹학교 출신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영어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이 있기까지 그녀의 도전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마침내 지난해 8월 숙명여대 교육학과를 7학기 만에 수석 졸업하는 영광을 안았다. 평점 4.3 만점에 4.19를 받아 졸업식 때 문과대학 대표로 졸업식 단상에도 올랐다.

그녀는 학생들과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2007년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로부터 분양받아 대학생활 내내 자신의 눈이 돼 준 미담이한테도 말한다.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된대, 너도 같이 가자”고. 미담이는 배움의 동반자를 넘어 가르침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뇌성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전우영씨(24·남)도 인간승리의 주인공이다.

그의 직업은 카피라이터다. 카피라이터는 광고 문구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광고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는 지난해 말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내업체 랭킹 2위인 대형 광고회사에 당당히 입사했다. 어휘를 선택하는 탁월한 능력 외에도 동료와의 친화력에서 좋은 점수를 땀다고 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영상에 대한 욕심이 컸다. 영화도 한 편당 5~6번 이상 보면서 명장면과 명대사를 메모했다고 한다. 그 열정을 집착하고 남는다. 그는 장애인

들에게 말한다. “나는 몸이 불편한 대신 남들보다 훨씬 풍부한 감성을 얻었다. 장애가 운명이라면 그 자체를 즐겨보면 된다”고.

우리 함께 감동 스토리여어가야

이들이 던지는 교훈은 값지다. 무엇보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자세다. 장애는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얘기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생각을 갖는 자체가 장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곧 민족의 명절 설이다. 올해 명절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이야기했으면 싶다. 장애인을 대등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는 시각교정이 요구된다. 제2, 제3의 김경민·전우영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극복한 이야기는 늘 감동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사회가 함께 감동의 스토리를 여어가야 한다.

새해 이 둘의 메시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꿈을 버리지 말라고 일깨워준다.

시론

장애인차별과 루저인식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문위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은 여기저기 자주 불러 다니지만 관용어 이상이 되는 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심지어 자신의 관점이나 사고가 온전히 스스로 의 것이 아닌 타자에 의해 점령되는 일조차 일상화된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자신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서구 국가들이 비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확산시켜 왔는가를 명증하게 보여줬다. 오리엔탈리즘은 심지어 그 대상이 되는 동양인들에게 전이되면서 자신조차 서구인의 관점으로 대상화하는 심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겉모습은 여전히 검은 머리카락과 까만 노동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고나 행동을 하면서, 러시아계 한국인 학자 박노자가 가슴 아프게 지적한 것처럼 하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키가 작은 남자를 ‘루저’라고 비하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한 나라에서 온 사람에겐 그렇게 멸시에 찬 눈빛을 보내면서도 거리에서 영어로 길을 묻는 금발머리에게는 여기는 분명 한국임에도 스스로의 신통치 않은 영어 실력을 원망하면서 손짓발짓 다해가며 길을 안내해주고 과잉 친절을 베푸는지도 모르겠다.

약자 지배하려는 우월적 사고 벗어나야

장애계도 다르지 않다. 본질은 장애를 만드는 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다. 그럼에도 장애인들 스스로조차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언론이나 주변에서 강요하는 ‘장애극복’ 이미지에 사로잡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자신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편견에 사로잡힌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리만족이라고도 할 것이다. 다수의 장애인이 삼성의 재벌가가 될 수가 없고, 오피니언리더가 될 수 없음에도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 이 모두는 루저인식, 교묘히 지배되어 온 지배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인으로 태어나 서구에서 성장한 에드워드 사이드는 동양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그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문제는 바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외부의 시선임을 깨달았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완성해낸 책이 ‘오리엔탈리즘’이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피부색이 검든, 외국 노동자이든, 키가 작든, 장애인이든 멸시하고 차별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은 자신의 신분상승과 계급이동이 불가능한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실천적으로 요구하고 행동하는데서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자기와 비교하여 더 약한 자를 ‘루저’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이다. 혹시 우리 역시 사회적 루저이면서 다른 약자를 지배하려는 우월적 사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리엔탈리즘에서 밝히는 우월적 힘에 대한 숭상에 젖어 있는 것이다.

자문해 보자. 백인은 잘생겼고 흑인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키 작은 사람을 놀리고 차별하지 않는가. 필자는 ‘아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 나도 루저인 장애인하면서도 말이다.

❖ 한국사회복지교육 평가인증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공청회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수급조절에 기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회장 표갑수)는 1월 27일 한국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교육 평가 인증 및 매뉴얼 개발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김통원 교수(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회장 표갑수)는 1월 27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한국사회복지교육 평가인증 및 매뉴얼 개발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김통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주제발표

사회복지교육 질적 수준 담보할 최소기준 없어

김통원 교수는 “사회복지계 내부에는 사회복지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실정”이라며 “실습지도 교수에 대한 실무경험 기준과 사회복지실천 과목을 담당할 교수요원의 최소 자격 규정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의 평가기준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회복지교육의 현실은 질적 수준의 저하를 낳을 수 밖에 없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며 “대중들은 정신과 의사나 상담심사에 비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편만한 원조전문가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인증기준을 도출하고, 이의 적용을 통해 인증 매뉴얼을 개발하는 동시에 아울러 인증제 실행을 위한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인증기준 도출 ▲사회복지교육기

관의 인증 매뉴얼 개발 ▲인증제 실행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합의된 인증체제 마련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직의 존재인 기능과 의미에 관한 교육현장과 실천현장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했다. 즉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인증기준과 구체적인 인증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지금껏 사회복지계의 핵심과제였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교육은 직업적 전문성을 형성하는데 목표를 뒀야 한다”는 김 교수는 사회복지교육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양질성의 원칙=한국 사회복지학 분야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기본틀을 마련해 개별 교육기관의 사회복지교육의 양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화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성의 원칙=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체계성의 원칙=개별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사회복지학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와 유관단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개발, 정착시키는데 목표가 있다.

△성과성의 원칙=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포함한 사회복지교육 전반에 걸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토록 하고 교육기관이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성화의 원칙=각 교육기관은 소재하고 있는 지역성, 규모, 설립목적에 따라 다른 교육 환경에 처해 있고 지향하는 비전, 사명 등도 다를 수 있다. 비록 사회복지교육의 양질성 확보를 위한 표준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개별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인증기준의 내용은 교육기관이 인증신청 시 제출할 자체 평가보고서 심사와 현장실사가 심사의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면서 인증기준을 ▲교육기관의 비전, 사명 및 목표 ▲교육과정 ▲교수 ▲학생 및 교육여건 ▲행정 및 평가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인증심사 매뉴얼 또한 새롭게 제시했다.

한국사회복지학 인증을 신청

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가 인가하는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에 한하며, 이들 교육기관이 인증대상이 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학위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을 최소 2년간 지속적으로 배출한

필요한 정보와 시설을 준비하며 실사단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사를 수행한다. 실사단장은 실사단이 합의한 방문보고서 및 인증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제안서를 대외비로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사회복지교육 인증기준 개발 위한 5대 원칙 제시 인증기준은 교육기관비전·교육과정·교수 등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증신청서 제출 및 예비심사 결과통보=인증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이 한국사회복지교육인증원 예비심사 인증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예비심사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해 그 결과를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실사단 서류 심사=예비심사를 통과한 교육기관은 인증위원회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인증위원회에서는 실사단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구성해 자체 평가보고서를 검토한다. 충분히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된 교육기관에 현장실사를 준비토록 통보한다.

△교육기관 실사 및 방문보고서 제출=실사 일정이 결정되면 교육기관에서는 실사단이

△인증여부 및 인증조건 결정=인증위원회는 실사단이 제출한 방문보고서와 제안서를 토대로 인증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교육기관의 이의 제기=교육기관은 인증 여부, 인증조건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사회복지교육인증원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회는 제기된 이의에 대한 중재 결과를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교육의 이해당사자간 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일정 수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의 결과물이 될 사회복지교육 인증기준과 매뉴얼은 현재 사회복지사 양성의 질과 양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복지사의 수급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롭습니다.

謹賀新年

그 간 베풀어 주신 關心과 配慮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마트폰의
QR코드리더를 통해
제주삼다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rp.

695-9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교래리 산70) | (064)780-3400

www.jpdc.co.kr